

Neighbor

최고의 삶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네이버>



SPECIAL THEME
HOMME

11
EMBER 2013



SUNGJINFUR

NATURAL PERFECTION®



오래된 사유
최홍선 개인전

'모든 것은 이미 거기에(The Old)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 역사 속의 도자 형태에 대한 미감과 고전 읽기에 관심이 컸던 최홍선 작가는 이 진리 한 소절에 다다랐다. 11월 19일부터 30일까지 완물취미에서 열리는 최홍선의 <지극한 '것'>은 이러한 진리에 한 발짝 다가서는 전시다. 그는 우리 역사 속 의미 있는 도자의 형태를 발취해, 그것의 단면을 포착한 '것'과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지적 사유를 통해 일어난 마음의 '것'들을 빚어냈다. 문의 02-541-6480



당신의 눈을 의심하라
그레고리 스캇

르네 마그리트와 함께 예술계의 장난꾸러기로 통하는 그레고리 스캇. 그의 한국 첫 개인전이 11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공근해갤러리에서 열린다. 그는 '거울 속의 거울 속의 거울' 시점을 이용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장난감을 가지고 놀 듯 연출해낸다. 전통 예술 기법과 디지털 기술의 절묘한 결합. 그는 HD스크린 비디오, 평평한 패널에 그린 유화, 디지털 사진, 이 세 가지를 결합해 겹의 착시 효과를 노린다. 문의 02-738-7776



그 청춘의 기록들
라이언 맥킨리

우리 시대의 청춘을 가장 진솔하게 표현하는 라이언 맥킨리. 11월 7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그의 청춘 기록인 <라이언 맥킨리-청춘, 그 찬란한 기록> 사진전이 아시아 최초로 대림미술관에서 열린다. 자유와 열정, 해방과 순수, 그리고 불안과 이탈 등 젊음의 내면에 공존하는 다양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그의 대표작 로드 트립 시리즈, 애니멀 시리즈, 흑백 초상화 시리즈 등 누군가의, 어쩌면 우리 모두의 청춘을 한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문의 02-720-0667



고요한 아름다움의 순간
칼리토 카르발료사

전시장을 가로지르는 이 거대한 나무기둥의 정체는? 설치작가 칼리토 카르발료사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현장이다. 11월 12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개인전은 공간 전체를 탈바꿈하는 장소 특성적 프로젝트다. 국제갤러리 3관. 그는 이 갤러리 공간 내에 육중한 나무기둥을 설치했다. 보기만 해도 압도되는 이 작품은 실내 공간과 교차하는 12개의 전장(全長)으로 이루어진 나무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가 사용하는 재료는 대규모의 오브제부터 금방 사용되고 없어질 식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작품 속 오브제는 본래 가로등 기둥으로 사용되던 것으로, 형용할 수 없는 가벼움과 동시에 죽음의 무게에 대한 불길한 감정을 떠올리게 한다. '대기실'이라는 의미의 '살라 드 에스페라'라는 작품이다. 그는 이처럼 건축적 공간의 변형을 통해 도시 속에 내재하는 일상의 사물을 재해석함으로써 상실과 평온이라는 시적 감정을 환기시킨다. 건물이 지닌 심리적 측면과 그곳에 거주하는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 뒤따라오는 고요한 아름다움의 순간. 카르발료사가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다. 문의 02-735-8449



상실에 관한 이야기
이소정 개인전

동양화의 필선과 발묵, 반복적으로 연결되는 유기적인 추상 이미지. 그러나 그의 작품에는 특정한 형상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대신 우연히 발생하고 이어지는 선들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그림에 담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상징적으로 제시한다. '그 시각' '그 노래' '그 화해' 등 작가는 자신이 과거에 자동 발생적으로 만들었던 상실된 이미지들을 역추적해 그것을 화면에 담았다. 11월 7일까지 두산갤러리에서 열리는 이소정의 <연동장치>다. 문의 02-708-5050